

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1. 6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일반개황 | 1 |
| II. 경제동향 | 2 |
| III. 정치·사회동향 | 9 |
| IV. 국제신인도 | 12 |
| V. 종합의견 | 14 |

I. 일반개황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면적 | 300천km ² | GDP | 1,887억 달러 (2010년) |
| 인구 | 94백만 명 (2010년) | 1인당 GDP | 2,008달러 (2010년) |
| 정치체제 | 대통령중심 공화제 | 통화단위 | Peso |
| 대외정책 | 친서방 민주주의 | 환율(달러당) | 45.11 (2010년 평균) |

- 필리핀은 1565년부터 스페인 및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, 1943년에는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함.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,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.
-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, 셀레베스섬 사이에 위치하며, 7,107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국가로 루손과 민다나오 섬이 총 면적의 2/3를 차지하고 있음.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마르코스 정권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부정부패에 따른 국가 발전 정체로 'sick man of Asia'로 불릴 정도로 낙후한 국가로 전락한 바 있음.
- 1986년 시민봉기로 마르코스 정권이 종식된 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, 피델 라모스 대통령 이후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음.
-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, 세계 정치사에서 최초로 모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, 필리핀에서는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| 구 분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^f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성장률 | 7.1 | 3.7 | 1.1 | 7.3 | 5.2 |
| 재정수지 / GDP | -0.2 | -0.9 | -3.9 | -3.7 | -2.2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2.8 | 9.3 | 3.2 | 3.8 | 5.3 |

자료: IMF, EIU.

□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

- 2007년 7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%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, 2008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,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 3.7%로 하락하였음.
- 2009년에는 상반기 중 세계경기 침체 영향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,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유입 증가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국내소비 및 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1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- 2010년 고정자본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7.1% 증가하는 등 투자가 확대되고 해외근로자 송금이 전년 대비 8.2%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5.3% 증가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7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1년에는 아키노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세계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투자가 2010년과 같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민간 소비와 서비스 산업 호조를 토대로 5%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안정된 물가 수준 유지

- 필리핀의 소비자물가는 2008년 상반기 주요 식료품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과 소비수요 위축에 따라 연평균 9.3%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.
- 2009년 상반기까지 국제 상품가격 하락과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8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년 이래 최저인 전년동월 대비 0.1%를 기록하였으나, 하반기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,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 상승,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.2%를 기록함.

- 2010년 상반기 중 건조한 날씨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물가가 상승 조짐을 보였으나 8월초까지 2010년 수입예정분의 94%인 200만 톤을 조기에 수입 완료하는 등 쌀 공급물량 확대로 물가가 안정되었으며, 미달러 대비 폐소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.8%를 기록함.

* 미달러 대비 필리핀 폐소 동향(평균) : 44.323('08) → 48.149('09. 3분기) → 46.768('09. 4분기) → 46.027('10. 1분기) → 45.509('10. 2분기) → 45.272('10. 3분기) → 45.272('10. 3분기) → 43.630('10. 4분기)

- 2011년에는 국제 유가 등 국제상품가격 및 식료품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3%~5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.

- 필리핀 중앙은행은 3%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월 이후 4%대로 상승함에 따라 2009년 7월 이후 4%로 동결해온 기준 금리를 2011년 3월 및 5월 두 차례에 걸쳐 4.5%로 인상하였음.

□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필리핀은 취약한 세수기반 및 세무행정능력 미흡에 따른 낮은 세수입과 지역 표심 획득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려 왔음.

- 그러나 2002년 GDP 대비 5.4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, 민영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7년에는 10년 이래 최저치인 GDP의 0.2%를 기록함.
-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 상대 식료품 지원 및 현금보조금 지급 등 지원 확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0.9%로 확대되었으며, 2009년 중에는 경기 침체,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, 민영화 자산 매각 처리 부진,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.9%로 더욱 확대됨.
- 2010년에는 전년도 감세 정책의 영향에 따른 제한적인 세수 확대 및 5월 중 대통령 및 의회 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하반기 신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축소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.7%를 기록함.
- 필리핀 정부는 2011년 1분기 중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 감소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소로 계획보다 820억 페소 적은 3,493억 페소를 지출함.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%대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취약한 제조업 기반

- 필리핀 경제에서 산업별 비중은 2010년 기준 농업 및 임수산업이 GDP의 13.9%, 서비스산업이 54.8%, 2차 산업이 31.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차 산업 중 제조업은 전체 GDP의 20.7%를 차지함.
-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제조업(20인 이상 사업장)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액 8,165억 페소(186억 달러) 중 정유 및 연료제품

(21.4%)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(10.2%)의 비중이 크며 그 밖에 식품 가공업(5.0%), 유제품(4.6%), 담배(4.3%), 음료(4.0%) 등 국내수요 위주의 소비재 산업에 집중됨.

- 이에 따라 수출품목도 반도체 및 전자품목이 전체 수출의 60%에 이를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임.

□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

-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(1965년~1986년) 독재 정권시 부정부패 문제와 에스트라다 대통령(1998년~2001년)의 부동산 투기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따른 사임, 아로요 대통령(2001년~2010년)의 선거부정과 친인척의 뇌물수수에 따른 탄핵 위기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옴.
- World Bank에서 발표한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필리핀은 2009년 기준 동아시아의 경제규모 상위 10대 국가 중 부패관리도(Control of Corruption)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, 법치(Rule of Law) 지수에서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함.
-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조세회피 등과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세수율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

□ 극심한 빈부격차

- 2006년 기준 필리핀의 소득수준 상위 20%가 전체 국민소득의 50%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%는 5.6%에 불과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함.
 - 중국 화교가 필리핀 상권의 60%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또한 전체 국민의 22.65가 일일 소득 1.25달러로 생활하는 등 극빈층은 두터운 반면 중산층은 미약함. 빈곤층의 60%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간 빈부격차 또한 큼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BPO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

-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의 50%를 초과하는 필리핀은 최근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(Business Process Outsourcing: BPO)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.
 - 필리핀의 BPO 산업은 인도에 이어 2위 규모로 2010년에는 8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고용인원 또한 52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.
 - 필리핀 정부는 동 산업을 투자유치 우선계획(Investment Priorities Plan)에 포함시키고,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을 일반 기준 40%가 아닌 100%까지 허용하는 한편 소득세, 수출세 등에 대한 면세 및 감세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음.
- 숙련된 미국식 발음의 영어구사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,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.

□ 풍부한 광물자원

- 필리핀은 구리, 금, 니켈, 은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04년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에 대한 합헌 판결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100%까지 허용됨에 따라 최근 광물자원, 석유 가스 의 탐사 개발 등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.
 - 취약한 인프라 등에 따른 높은 생산비에 비해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개발이 부진했으나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 필리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였음.
 -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자원개발 투자 감소의 영향을 받았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향후 필리핀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.

다. 정책성과

□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지속

- 취약한 세수기반 및 조세징수 제도 미비 등으로 2002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.4%에 달했으나 아로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수지 적자 개선 정책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GDP의 0.9%까지 축소됨.
-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 부양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 3.9%로 다시 확대되었으나 현 아키노 대통령은 2010년 6월 집권 이후 재정 지출 축소에 노력하여 2010년 재정수지 적자가 3.7%로 축소되었음.
 - 인프라 관련 사업의 경우 민관협력(PPP) 사업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

- 아키노 대통령은 부족한 세수로 인한 부진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민관협력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체의 진출 절차 간소화 및 BOT(Build-Operate-Transfer) 방식에 의한 투자 심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필리핀 정부는 PPP 사업 추진을 위해 PPP 센터를 설립하였으며, 2011년 중 NAIA 고속도로 2단계 사업, Daang Hari 도로 사업, Puerto Princesa 공항 개보수 사업 등 약 35억 달러 규모의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.

3. 대외거래

□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

- 필리핀은 원유, 식료품,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
- 2008년 중 전체 수출의 60%를 차지하는 전자제품, 반도체의 수출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로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유, 식료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3.6% 증가한 1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 중에는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상품수지 적자가 8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.
- 2010년 중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40%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34.7% 증가하였으나,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소비 수요 증가, 반도체 등 전자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 및 수입 품목 가격 회복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상품수지 적자가 104억 달러로 증가함.

□ 서비스수지 호전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

- 필리핀은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처리아웃소싱(BPO)과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음.
- 2008년 중에는 서비스, 소득, 이전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49% 감소한 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2009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감소,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.
- 2010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되었으나,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전수지가 증가하였음에도 상품수지 적자 확대와 화물 운임비용 및 해외여행자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.5%로 축소됨.

□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및 해외근로자 송금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

-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2009년 21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해외근로자 송금이 지속적인

로 증가함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540억 달러에 달해 월 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2009년 말 7.35개월에서 2010년 말 8.29개월 수준으로 개선됨.

*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 : 32억 달러('07) → △44억 달러('08) → 21억 달러('09) → 97억 달러('10년)

* 해외근로자 송금 추이 : 144억 달러('07) → 164억 달러('08) → 173억 달러('09) → 188억 달러('10년)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^f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 상 수 지 | 7,112 | 3,627 | 9,358 | 8,465 | 6,051 |
| 경 상 수 지 / GDP | 4.9 | 2.2 | 5.8 | 4.5 | 2.6 |
| 상 품 수 지 | -8,391 | -12,885 | -8,842 | -10,384 | -15,721 |
| 수 출 | 49,512 | 48,253 | 37,610 | 50,684 | 54,306 |
| 수 입 | 57,903 | 61,138 | 46,452 | 61,068 | 70,027 |
| 외 환 보 유 액 | 30,071 | 33,047 | 37,504 | 53,991 | .. |
| 총 외 채 잔 액 | 65,910 | 64,875 | 62,911 | 63,747 | 64,570 |
| 총 외 채 잔 액 / GDP | 45.7 | 38.8 | 39.1 | 33.8 | 28.2 |
| D S R | 12.5 | 14.8 | 15.2 | 11.4 | 9.8 |

자료: IFS, EIU.

III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당선 후 안정적인 정세 지속

○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(Corazon Aquino) 전 대통령 (1986년~1992년)의 아들인 자유당(Liberal Party)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(Benigno Noynoy Aquino)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됨.

- 금번 선거 때부터 자동검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선자를 조기에 결정 함에 따라 기존에 수작업 개표로 인해 초래되었던 후보 진영 및 유권 자간 폭력사태 발생 등의 정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.

- 필리핀은 8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당간 정책 차이가 아닌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력 인물의 인기 등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임.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도 2009년 8월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부정부패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청렴하다는 이미지로 새로이 급부상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됨.
- 아키노 대통령은 5월 선거에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제치고 41.87%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임.

□ 아로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과 갈등 발생 가능

- 아키노 대통령은 부패 청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취임 전부터 아로요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고, 취임 직후 부패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아로요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실위원회(Truth Commission)를 설치하였음.
- 아로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임명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2010년 12월 중 진실위원회 설치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 진행에 따른 양측 간 즉각적인 마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.
- 그러나 아키노 현 대통령이 전 정권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2010년 5월 의회 선거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아로요 전 대통령이 제1야당인 라카스-CMD 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현 정권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열악한 치안 및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 따른 사회 불안 요인 상존

- 필리핀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총기류 및 마약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납치, 강도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함.
-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,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대 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며,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, 2001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퇴진함.

□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

-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로 민족해방전선(MNLF)과 모로 이슬람해방전선(MILF), 아부 사프(Abu Sayyaf) 과격단체 등 이슬람 단체가 이슬람지역내 완전한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무력으로 충돌하고 테러공격을 해왔음.
 - 2005년 9월 아로요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말레이시아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해방전선간 개최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 40여년 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안에 합의했으나 가톨릭계 시민들 및 의회의 반대와 2008년 8월 협상안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평화협상안이 무산된 이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음.
 - 아로요 대통령 임기 말기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나, 아키노 신임 행정부는 이슬람 반군세력 및 공산반군세력과 임기내 평화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 하에 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며, 이에 따라 모로이슬람해방전선 및 공산반군과 2011년 2월에 첫 공식협상을 재개함.
 - * 필리핀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의 이주로 갈등이 시작되었음.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희생됨.
- 루손 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 공산당인 신인민군(NPA), 민족민주전선(NDF) 등 공산 반군 또한 최근 병력 감소 및 정부와의 협상 진행 등으로 테러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미국과 경제, 군사, 안보 등에 있어 긴밀한 관계 유지

- 미국의 대 필리핀 교역규모는 2010년 기준 134억 달러(수출 75억 달러, 수입 59억 달러)이며, 대 필리핀 순해외직접투자액 2억 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임. 또한 미국은 지난 40년 간 5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, 미국 내 필리핀 거주민 300만 명과 필리핀 내 10만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음.

-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여 안보협력관계 유지 강화에 노력해 왔음.
- 2008년 1월 양국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양국간 군사물자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음.
- 2008년 중 미국은 필리핀에 3,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함.

□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

- 일본은 필리핀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공여국(필리핀 수원 총액의 50% 이상)이고 2010년 기준 최대 교역(146억 달러) 및 투자국(순투자액 2.4억 달러)임.
- 2003년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; EPA)을 체결하고 2008년 필리핀 상원의 비준동의로 발효되었음.

□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 노력

- 필리핀은 ASEAN의 설립 회원국으로 이를 위주로 지역안보 및 통상 증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며, 남사군도(Spratly Islands)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으나 ASEAN 등 다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정상적인 채무상환

- 필리핀은 파리클럽으로부터 5차례(1984년, 1987년, 1989년, 1991년, 1994년)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나,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양호한 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해외근로자 송금의 유입 지속 등으로 대외 유동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현황

- S&P는 최근 필리핀의 서비스수지 및 이전의 수지 흑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대외 유동성 개선으로 2010년 11월 중 필리핀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B-(Stable)에서 BB(Stable)로 상향 조정하였음.
- Moody's는 아키노 정부가 2010년 하반기에 이어 2011년에도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세수증가에 노력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있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, 대외채무비율이 높은 편이나 필리핀중앙은행의 효과적인 물가 관리로 이자지급 비용이 감소한 점 등을 이유로 2011년 6월 중 필리핀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3(Positive)에서 Ba2(Stable)로 상향 조정하였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| 평가기관 | 최근 평가 등급 | 종전 평가 등급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수출입은행 | C2 (2011. 6.) | C3 (2010.12.) |
| OECD | 4등급 (2011. 3.) | 4등급 (2010. 4.) |
| S&P | BB (2010.11.) | BB- (2006. 2.) |
| Moody's | Ba2 (2011. 6.) | Ba3 (2011. 3.) |
| Fitch | BB (2010. 8.) | BB (2009. 5.) |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49년 3월 3일(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)
- 주요협정: 항공운수협정(1969년), 무역협정(1978년), 경제기술협력협정(1983년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84년), 투자보장협정(1994년)
-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 - 필리핀은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임.
 -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2007년 69억 달러, 2008년 81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.

2010년에는 수출이 58억 달러, 수입이 35억 달러로 총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29.2%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함.

-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, 철강판 등으로 2010년 중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31.7%를 차지하였음.
-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1년 3월말 현재 신규법인 수 1,233건, 15.5억 달러(투자누계 기준)이며,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으로 주로 전자부품, 컴퓨터, 식료품 제조업에 투자해 옴.
- 필리핀에 대한 EDCF 지원은 1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2011년 5월말 현재 까지 총 3,755억원 승인하고 그 중 989억원을 집행함.

<표 4> 한·필리핀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| 대 필리핀 | 2008 | 2009 | 2010 | 주요품목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| 5,016 | 4,567 | 5,838 |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, 철강판 |
| 수 입 | 3,099 | 2,652 | 3,488 | 반도체, 원유, 동제품 |
| 합 계 | 8,115 | 7,219 | 9,326 |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필리핀은 2009년 중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유입 증가 및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1.1%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, 2010년에는 투자 확대 및 민간 소비 증가로 7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키노 대통령이 2010년 6월 집권 이후 정부지출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 GDP 대비 3.9%에서 2010년 3.7%로 축소되었으며,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BPO 등 서비스수지 흑자와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음.
-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만연한 부정부패,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경제 구조상 취약점으로 작용하나 BPO 산업 및 풍부한 광물자원은 필리핀 경제의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2010년 6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취임 후 필리핀은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열악한 치안과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등 사회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.

책임조사역 이진경 (☎02-3779-5704)
E-mail: jinkyung22@koreaexim.go.kr